

친환경 펄프몰드 공급 '환경지킴이' 금형제작 및 생산설비 병행, 경쟁력 갖춰



김 강 일
(주)잇성 대표이사

환경규제에 대한 선진국의 장벽이 갈수록 높아지면서, 이를 극복하기 위한 국내 기업들은 친환경제품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폐기물을 대량 양산하는 포장재는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수입규제를 강화할 정도로 민감한 사항으로 작용하고 있다.

예를 들어 선진국에서는 재활용이 불가능한 포장용기를 포함한 제품들에 대해서는 수입 허용을 금하고 있다.

이에 대한 대안으로 친환경 제품으로 각광받고 있는 펄프몰드는 골판지, 신문, 폐지 등의 천연자원이 주원료이기 때문에 사용 후, 재활용이 가능하며 소각 시 유독가스 발생도 없고 매립시 분해가 가능하다. 국내 및 해외동향으로 볼때 휴대폰 생산업체의 Inner 박스 흐름은 대부분



▲ (주)잇성이 생산하는 펄프몰드



▲ 경기도 화성시 장안면에 위치한 (주)요성 공장전경

펄프 몰드 트레이로 향하고 있으며 LG전자, 모토로라, 노키아, 큐리텔 등 기타 업체들도 기존 플라스틱 제품에서 펄프제품으로 대체하고 있다.

(주)요성(대표이사 김강일)은 펄프몰드 시스템, 몰드 트레이 제품을 기초화 하여 재활용 펄프를 이용, 인체에 무해하고 환경 친화적인 식품 및 공산품 용기를 생산할 수 있는 설비를 개발 완료 해 국내 굴지의 친환경 기업으로 선도적인 역할을 하고 있다.

특히 펄프 몰드 원천기술인 금형의 제작과 기계 생산설비를 병행, 동종업계에서도 독

보적인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설비 플랜트를 제작 판매하는 벤처기업으로 기존 PP, PE, PVC, EPS 등을 이용했던 1회용기 및 공산품 용기(휴대폰, 화장품, 주류, 제약 등) 대신 재활용 신문용지, 전산용지를 이용하여 제품을 생산, 납품하고 있다.

1996년 설립된 요성은 포장용 완충체 시스템을 개발하면서 98년 국내 최초 펄프몰드 시스템(건식)을 개발 완료했으며 99년 7월 벤처기업으로 등록했다. 또한 2001년에는 펄프몰드금형인 CNC 알루미늄 금형을 자체 제작하고

중국(심천) 투자법인 3 라인을 설치 운영(ZERAPA CO. LTD.,)하기에 이르렀다.

요성은 품질적인 면에서도 ISO 9001:2000 품질경영시스템, ISO 14001:1996 환경시스템 인증과 2개의 실용등록을 마치는 등 그 우수성을 인정받고 있다.

현재 요성은 전자제품완충체, 식품생활용기, 공업용완충체 등을 생산하고 있다. 요성의 전자제품완충체는 열금형건조방식(고온압착방법)으로 제작, 별도의 부차재의 사용없이 정보통신, 전자기기 등 충격에 민감한 상품의 뛰

IPSUNG

어난 완충재로 상품을 더욱 부드럽고 안전하게 보호한다.

식품생활용기는 천연펄프를 사용하므로 환경호르몬이 전혀 없어 식품용기로 제작하여 사용할 수 있다.

공업용완충재는 스티로폼 포장완충재의 대체품으로 사용되며 크게 3가지로 구분되는데 소프트 몰드, 하드 몰드, 하이텍 몰드가 있다.

소프트 몰드는 제품 두께 3mm까지로 구분하며 생산 가능 제품으로는 경량 전자제품의 포장 완충재로 현재 개발중에 있다.

하드 몰드 역시 개발 중에 있는데 제품 두께 5mm까지로 구분하며 생산 가능 제품으로는 중량물의 포장 완충재이다.

하이텍 몰드는 앞, 뒷면이 모두 매끄러운 포장완충재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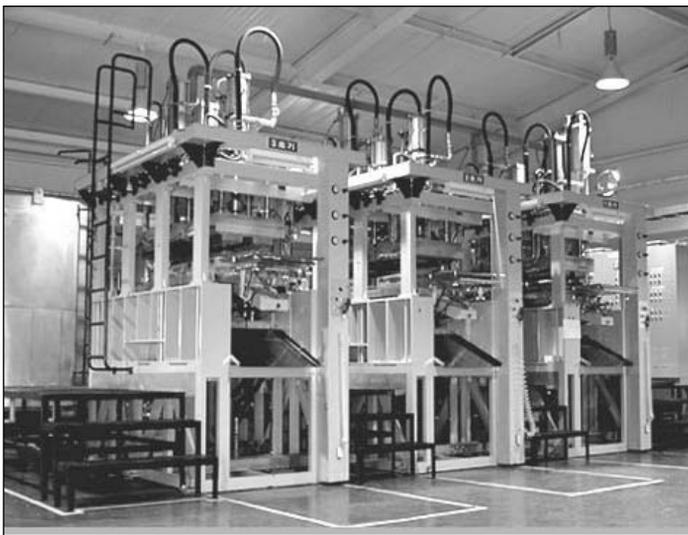
잇성은 이미 우수성을 인증

받은 제품을 LG전자, 팬텔&큐리텔, 삼성전자, 모토로라 등에 납품하고 있다.

45여명의 직원들에게 '성실한 자세로 임하라'고 강조하는 김 사장은 기술 투자 여건이 쉽지 않은 중소기업으로는 드물게 수입의 일부분을 재투자하며 신제품 개발에 노력하고 있다. 김 사장은 기술 자체는 국내 뿐 아니라 세계 1위를 자부하고 있지만 중소기업인으로서 환율 문제에 대한 적절한 대응 및 시장개척에 대한 한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중소기업으로서 여러가지 한계를 느끼고 있지만 펄프물드분야는 대량생산이 가능하고 포장 부피가 적어 물류절감 및 포장공수와 보관공간의 단순화에 따른 경쟁력 효과가 커 발전 가능성이 무궁무진한 산업이라 잇성은 더욱 성장을 거듭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김 사장은 “여느 사업가와



▲ (주)잇성의 펄프몰드 시스템



▲ (주)잇성의 공장 내부

마찬가지로 잇성을 세계로 뻗어가는 기업으로 키우는게 목표"라고 포부를 밝혔다.

현재 잇성은 중국 뿐 아니라 브라질에 설비를 두고 올해 초 브라질에 2차분 발주를 계획 중에 있어 해외 시장 개척도 말빠르게 이뤄지고 있다.

이에 잇성은 2005년 제42회 무역의 날을 맞아 1백만불 수출의 탑을 수상, 조금씩 세계로 뻗어갈 준비를 하고 있다.

김강일 사장은 "10년간 묵묵히 한가지 일을 매진하여 노력한 결과물인 것 같다"며 "어

려운 여건속에서도 기술개발에 전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국펄프몰드협회 설비분과 위원장이기도 한 김강일 사장은 "잇성의 경쟁력은 설비와 금형 제작을 동시에 공급하는 것"이라며 "고객이 원하는 다양한 형태를 제공하기에 믿음을 줄 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난 해 매출액 60억을 달성한 잇성은 올해 80억 이상을 목표로 하고 있다.

펄프몰드 산업은 범규제화에 따른 대처가 가능하고 환경

보존을 위한 국제적 무역 규제화로 유럽 선진국의 환경마크 부착이 의무화되면서 그 어느 때 보다 친환경 제품이 각광받고 있는 현 시점을 감안한다면 잇성의 올해 매출 목표는 무난하게 달성할 것으로 보인다.

자연과 환경을 생각하는 벤처기업 (주)잇성. 앞으로 잇성은 다년간 축적된 경험과 탄탄한 기술력 및 확실한 품질관리를 바탕으로 고객의 만족을 최우선으로 여기며 기술개발에 최선을 다할 것이다. ☐

이한일 기자